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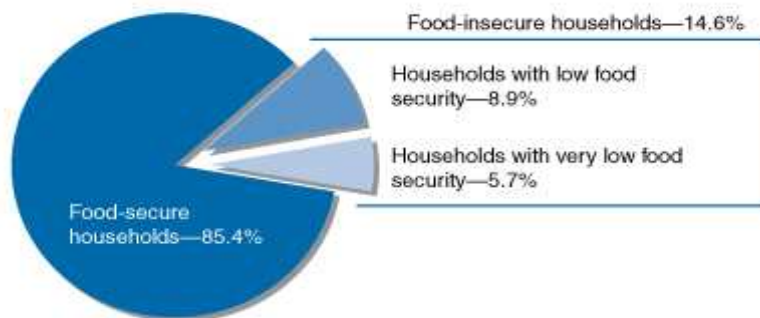
(미래정책연구실, 2009.11.23)

## 1. 미국 식품안보지수 하락

### 1) USDA 보도자료 (2009.11.16) 주요 내용

- USDA 산하 ERS(Economic Research Service)가 11.16일 발표한 2008년 미국 가계식품안보 연례보고서에 따르면, 1,700만 가구(전체 가구의 14.6%)가 충분한 식품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(food insecure)을 겪었음.
  - 이는 1995년 조사 개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, 2007년 1,300만 가구(11.1%)에 비해 31% 증가한 것임.
- 특히, 식품부족 가구의 약 1/3인 670만 가구(전체의 5.7%)는 식품의 절대적 섭취량이 감소하거나 식생활 패턴이 변하는 등 그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.
  - 이 역시 1995년 조사 개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, 2007년 470만 가구(전체의 4.1%)보다 증가함.

그림 1. 미국 식품안보별 가계 구분



주: 2008년 12월 ERS 조사치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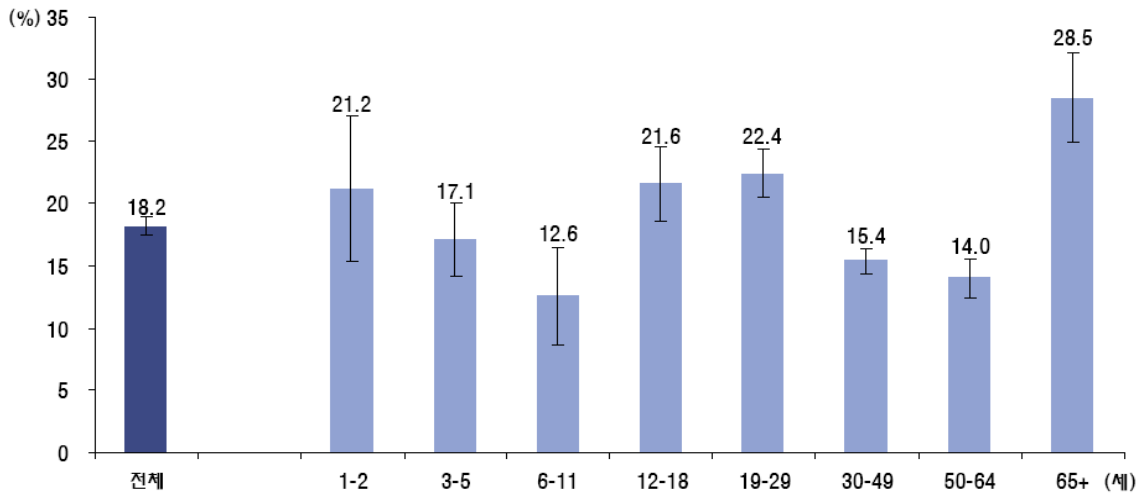
- 심각한 식품 부족을 겪은 어린이는 506,000가구에서 나타남.
  - 이는 어린이가 있는 가구의 1.3%에 해당하며, 2007년 323,000가구(어린이가 있는 가구의 0.8%)보다 증가함.

- 대개의 경우, 가정내 식품이 부족하더라도 어른들의 소비량을 먼저 줄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식품 부족이 그만큼 나타났다는 것은 그 상황이 심각함을 의미함.
- 미국 가정에서 식품부족 및 기근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빈곤임.
  - 경기 불황으로 인한 실직자 증가, 식품 가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.
- 오바마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식품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.
  - 영양보조프로그램(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, SNAP)을 통해 3,650만 명(이중 절반은 어린이)에 대한 영양 보조를 지원
    - \* SNAP은 기존의 '푸드스탬프(Food Stamp)'를 대체하는 프로그램임.
  - 학교급식프로그램(National School Lunch program)으로 3,100만 어린이들에 건강한 식사를 제공
  - 여성, 유아, 어린이를 위한 특별영양프로그램(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, Infants and Children, WIC) 시행
    - \* 미국 유아의 절반 가량이 WIC 프로그램에 참여함.
- Tom Vilsack 장관은 USDA가 시행하는 각종 영양보조 프로그램들이 있으나 완전한 식품안보의 달성(특히, 어린이 기근 퇴치를 강조)을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정책 및 사회 각층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함.

## 2) 우리나라에의 시사점

- 우리나라 연령별 영양 섭취 현황을 보면,
  - 만 30~64세 성인은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자 비율이 낮고, 기준 이상 섭취자 비율이 높은 반면,
  - 청소년은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.
  - 노인(만 65세이상)층은 전반적인 섭취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.
  - 따라서 청소년과 노인층의 영양섭취 개선 필요가 절실함.

그림 2. 연령별 영양섭취부족자 비율



자료: 2007 국민건강통계,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

○ 향후 정책방향

- 식품영양정책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생활에 관한 홍보 및 교육 뿐만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노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영양지원프로그램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.
-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형 WIC 프로그램인 영양플러스 사업의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여, 노인 및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, 이에 전통적인 식품체인을 연계(안전한 유기농산물 지원 등)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.